



장전 브리핑 · 개장 전 필수 체크

미·이란 긴장 재점화 vs 실적 기대감...코스피 방향성 주목

글로벌 마감 지표

S&P500 7,126.06 (+1.20%)	나스닥 24,468 (+1.52%)	다우 49,447 (+1.79%)	필라반도체 9,555.88 (+2.43%)
WTI 82.59 (+0.00%)	금 4,809.50 (-0.99%)	비트코인 73,948 (-2.35%)	원/달러 1,465.99 (-0.81%)
달러인덱스 98.28 (+0.18%)	영국FTSE 10,668 (+0.73%)	독일DAX 24,702 (+2.27%)	

🔥 핵심 이슈

1 미국, 이란 선박 나포·유가 급등

미군이 이란 화물선을 강제 나포하면서 국제유가(WTI)가 8% 폭등, 배럴당 91달러에 육박했다. 중동 리스크 재점화로 에너지·해운 업종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, 항공·여행·식품 등 유가 민감 업종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.

[미국, 이란 선박 강제 나포...이란 협상 거부 갈등 격화...](#) [\[속보\] 미군, 이란 상선 발포에 국제유가 급등...WTI·브렌트 7%↑...](#)

2 S&P500 사상 첫 7100 돌파

호르무즈 개방 기대감과 실적 시즌 호재가 맞물리며 S&P500이 사상 처음으로 7100선을 돌파하고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.43% 상승했다.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국내 증시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[S&P500 7,000 돌파...글로벌 증시, 위험자산 선호 확산...](#) [호르무즈 개방에 S&P '사상 첫 7100' 돌파...'육천파' 더 오르나...](#)

3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임박

SK하이닉스가 오는 2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영업이익 40조 원 돌파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반도체 섹터 전반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로, 삼성전자 등 관련주 동반 움직임이 예상된다.

['영업익 40조 넘나'... SK하이닉스 '기대감 고조'...](#) [SK하이닉스 23일 실적 발표...영업익 '역대 최대' 40조 돌파 '주목'...](#)

4 미·이란 2차 핵 협상 불투명

트럼프 대통령이 '합의 불발 시 폭격 재개'를 경고한 가운데 2차 협상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중동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. 협상 결렬 시 유가 추가 급등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.

[미·이란 2차 담판 임박...트럼프 "합의 안 되면 폭격 재개"...](#) [\[증시전략\] 호르무즈 재봉쇄에 '공포' 재고조...테슬라 실적 영향은?...](#)

5 글로벌 성장률 하락·IMF 경고

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3.1%로 하향 조정하고, 미국 리더십의 한계를 경고했다.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증시에 중장기적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.

[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세계 성장률 3.1%로 추락... IMF "미국 리더십 한계..... 16% 된 수입물가, 기업 "경영활동 숨차다"...](#)

6 테슬라·인텔·IBM 실적 발표 예정

이번 주 테슬라, 인텔, IBM 등 미국 빅테크·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잇따라 발표된다. 결과에 따라 국내 IT·반도체·2차전지 관련주의 동반 등락이 예상된다.

[폭발적 랠리, 운명이 달렸다...테슬라·인텔·IBM 실적 발표\[이번주 美 증..... \[증시전략\] 호르무즈 재봉쇄에 '공포' 재고조...테슬라 실적 영향은?...](#)

7 코스피 6000선 회복·대기자금 635조

코스피가 6000선을 회복하며 실적 장세로의 전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, 증시 대기자금이 635조 원을 웃돌고 있다. 블랙록의 한국 증시 비중 확대 권고도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요인이 된다.

[코스피 6천선 회복...실적장세 전환 속 대기자금 635조 웃돌아...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6220선 탈환... 블랙록 "한국 증시 비중 확대"...](#)

8 삼성SDI 신고가·배터리 업황 반전

삼성SDI가 적자 전망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기록하며 기관·외국인의 대규모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. '배터리 겨울'의 끝을 기대하는 선행 매수 흐름으로, 2차전지 섹터 전반에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.

[삼성SDI, 적자 전망에도 신고가...큰손 베팅에 '배터리 겨울' 끝 보이.....](#)

9 재계 총수, 인도·베트남 세일즈 외교

이재용·정의선·구광모 등 4대 그룹 총수가 대통령 인도·베트남 순방에 동행해 신흥시장 공략에 나섰다. 글로벌 사우스 투자 확대 기대감이 관련 대형주의 증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[이재용·정의선·구광모, 인도行 동반 출국..."14억 인도·베트남 잡는다.....](#) [李 인도·베트남 순방 맞춰 재계 총집결...글로벌 사우스 공략 본격화...](#)

10 **한은 총재 공백 리스크 부각**

신현승 한국은행 총재 후보 임명이 지연되며 오늘 국회 합의 불발 시 총재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.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는 원화 및 채권 시장에 단기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.

[신현승 임명 지연...오늘 국회 합의 불발 시 한은 총재 공백 불가피...](#)

오늘의 관전 포인트

오늘 코스피는 S&P500의 사상 최고치 돌파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라는 우호적 외부 환경 속에서 출발하겠으나, 미군의 이란 선박 나포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(WTI +8%, 배럴당 91달러)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. 유가 급등 수혜 섹터인 정유·에너지·방산은 강세가 예상되는 반면, 항공·여행·식품·화학 등 에너지 비용 민감 업종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.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SK하이닉스(23일)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선취매 심리가 유지될 수 있으며, 삼성전자·삼성SDI 등 대형주 빚투 증가와 기관 주도 매수세가 상승 지지 요인이다. 다만 미·이란 2차 협상 결렬 가능성과 한은 총재 공백 리스크, 16% 상승한 수입물가 발 고물가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, 단기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유의하며 실적 가시성이 높은 반도체·방산·에너지 섹터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다.